

3급 승가고시 시행

법계 품수 명시등 시행규정 확정 4·5급 승가고시 시행기준도 정리

조계종 고시위

승려의 자질향상을 위한 3급 승가고시가 시행된다.

조계종 승가고시위원회(위원장 무비, 은혜사 승가대학원장)는 23일 김천 직지사 천불암에서 2차회의를 갖고 3급 승가고시 공고와 법계품수를 명시한 승가고시법 시행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총무원 총무회의의 심의와 총회의의 종헌·종법 개정을 거쳐 3개월전 공고 후 곧바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승가고시위원회 위원장 무비님은 "3급 승가고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 중앙총회 종헌종법에 법개정을 제안하여 승가고시

법과 법계법이 상충되고 승가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겠다"며 "3급 승가고시 시행은 승단의 위계와 승가교육, 승려 자질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헌에 규정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은 구족계 품수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 연령 30세 이상, 승납 10년 이상, 10학안거 성만사이며, 고시과목은 기신론, 전등록, 염송, 원각경, 금강경, 능엄경, 포교론, 서양철학사, 비교종교론이다. 3급 승가고시가 시행될 경우 총무원의 국장, 분사 소임, 말사 주지 자격과도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승가고시위원회는 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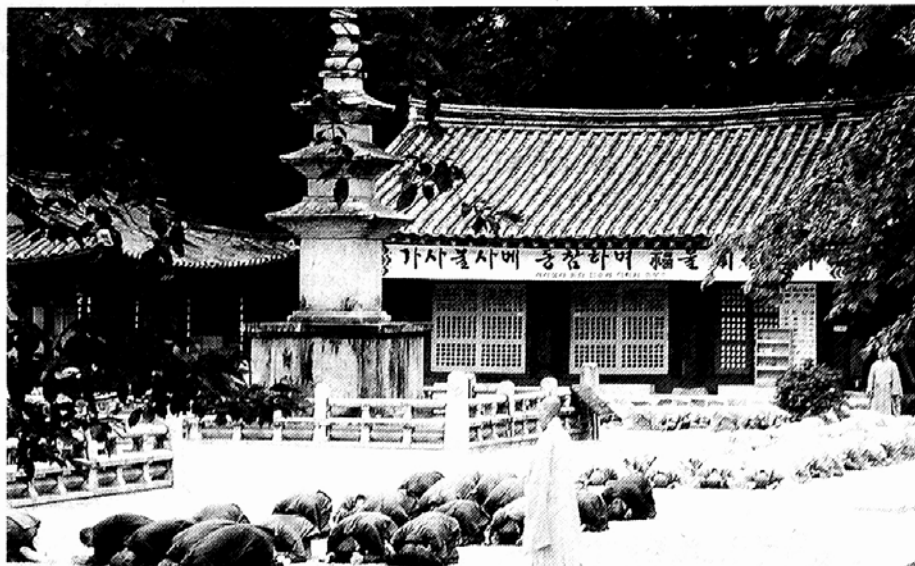
해의 4·5급 승가고시 집행은 관례대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춘 승가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31일까지 고시전문위원 7명(비구강원 2명, 비구니강원 2명, 동국대 1명, 승가대 1명, 기초선원 1명)을 위촉하여 10월 4일 오후 1시 순천 송광사에서 실시하는 4급 승가고시부터 고시 실무를 일임하기로 했다.

2001년 3월 실시되는 4급 승가고시는 강원·기초선원·대학의 구별없이 전체 고시대상자를 한곳에 집결시켜 통합시행하고 기존의 고시과목 중 선학개론을 불교학개론으로 변경했다.

시험은 강원 기초선원 정규대학 등 기본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 보완하여 발간하는 4·5급 <고시에상문제집>에서 출제키로 합의했다.

김천=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행자 1보1배 정진

김천 직지사에서 열리고 있는 19기 조계종 행자교육원에 입재한 행자 230명(남 121명, 여 109명)이 8월 24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1보 1배 정진을 하며 굳은 신심을 다지고 있다.

"저희들은 오늘부터 영검토록 부처님의 정법만을 신봉하고 보살도를 행하여 결정코 무상대도를 이루겠습니다."

직지사=김원우 기자

"사회각계 통일역량 결집"

24일 관문사서 '남북공동선언 실천대법회'

분단 55년만에 성사된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 당국의 합의사항이 지속 추진되어 남북 완전 평화통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천만 불자들이 불퇴전의 정진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조계종 총무원장)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불교대법회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종교분과위원회(위원장 송석구 동국대총장)와 공동 주최해 24일 천태종 서을관문사(주지 운덕)에서 봉행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종단협 산하 각 종단의 총무원장스님들과 김삼근 가톨릭교회협의회 평화통일위원장, 김동은 종교인평화회의 명예회장,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 등 각 종교 대표들, 송석구 동국대 총장, 박종연 청와대총보수석, 함종현 한나라당 총재특별단장 등 각계 대표들과 관문사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법회는 삼축, 대회사, 봉행사, 법어, 대통령 격려메시지 낭독, 축사, 평화통일을 위한 발원문,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대조계종총무원장 스님은 법어에서 "불자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민족 화해와 교류의 참뜻을 헤아려 요일종생의 지혜와 통제대비의 자비심으로 무

명을 밝히고 지혜와 원력을 모아 통일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자"고 설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족사의 새 지평을 연 6·15 남북공동선언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되어 남북 완전 평화통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범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사회각계의 통일역량 결집에 적극 노력 △남북장관급회담 6개 합의사항이 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며 민족화해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의 진전이 민족의 공존과 화해, 협력을 가속화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 △이산가족들이 보다 폭넓게, 보다 더 자주 상봉할 수 있도록 양 당국자간의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며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사업에 적극 참여 협력 등을 다짐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a.com)

지명-현승스님 공원위원 위촉

자연공원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공원위원회 위원에 지명스님(법주사 주지)과 현승스님(조계종 총회의원)이 위촉됐다.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그 밖의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공원위원회는 정부 공무원 11명, 민간인 10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

조계종 총무원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2인의 공원위원을 환경부장관에 추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8일 지명스님과 현승스님을 추천했으며, 환경부는 이날 두 스님을 공원위원으로 위촉했다.

정대스님은 이어 22일 재무부 재정국장에게 기획국장 해임스님을 임명했다. 재정국장 성효스님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기획국장은 공석이며, 곧 임명할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지명스님



◇현승스님

조계종 내년에 예산 동결

불교회관 건립등 목적사업 치중

조계종의 내년도 예산이 동결되며, 불교회관·중앙승가대 이전 등 종단목적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위원장 정대)은 22일 총무회의를 열어 '예산 동결-목적불사 중점 추진'을 골자로 한 2001년도 예산안심사지침을 확정하고 중앙총무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각 부서에 지침을 시달렸다.

이와 관련해 기획실장 일철스님은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일반회계에서 10% 감액하여 이 금액을 중앙승가대 이전불사와 불교회관 건립, 통일기금 등 종단의 목적불사에 투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심사지침에 따르면, 세입면에서는 사찰수입 증감요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올해와 같은 예산규모를 유지하며, 세출면에서는 사업비 보조금 경감비의 간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총무원은 종단목적불사의 성취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20%를 절감해 종단목적불사에 투여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중도의 역량을 결집하는 불교회관 및 중앙승가대학교 등 종단기간시설 건립 △중도들의 정체성 확립과 정보사회에 대비한 교육 강화 △신도교육 체계 수립 및 조직화 △불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대내외적인 문화·사회 역량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올해 조계종 예산은 일반회계 157억6천여만 원, 특별회계 125억4천여만 원 등 모두 283억여원이며, 조계종은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99년에 비해 일반회계는 9.6%, 특별회계는 12.4%씩 상향조정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중무기관

9월 1~9일 감사

조계종 총무원(위원장 정대)은 중앙총무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를 1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감사는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각 부서와 파라미터청소년협회, 조계종출판사, 복지재단, 불교신문사 등을 대상으로 △재정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재정집행 현황 파악 △행정쇄신에 주안점을 두고 재무감사와 업무감사로 나눠 실시된다.

기획실장 일철스님은 "이번 감사는 중무기관의 자기점검 기능과 자정능력을 배양시키고, 조계사신협 사건과 같은 재정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주민들과 가까이...

종교청년 평화축제

KCRP추최, 9월27~30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회장 최창규 성관관장)는 다음달 27~30일 영광출과 여해문화공간에서 불교 등 6개 종교 청년들이 참가하는 '밀레니엄 2000 종교청년 문화축제'를 연다. '새천년 평화의 물결이 한국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열리는 종교청년 문화축제에는 6개 종교의 청년들이 참가해 홈페이지제작 경연대회, 노래극 공연, 청소년 푸른영화제, 평화의 메아리 콘서트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02)736-2250 정성운 기자

1면 '전담'서 계속

뿌리가 들어가 균열이 생기면 붕괴위험마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벽돌 하나가 부서지거나 빠져도 석탑과 달리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전담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전점검을 맡고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진)는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록사 전담은 기술기가 중저년 상태라며 올해부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담은 신라시대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세워졌으며 현존하는 전담으로는 위의 두 곳 외에 안동 동부동 5층 전담(보물 제56호), 안동 조담동 5층전담(보물 제57호), 칠곡 송림사 5층전담(보물 제189호) 등 3기가 있으며, 대부분 특별한 보호시설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opia.com)

길월사 영탑(靈塔)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길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길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길월사 경내▶

조성된 영탑▶

길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울창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디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영탑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길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문의 :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길월사

▶ 홈페이지 : http://galwoi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보고 싶은곳 - 영원한 심터입니다. ▶ 기신론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